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된 한국의 아동빈곤: 새로운 지표의 적용가능성 탐색*

김 은 주**

◁ 요약 ▷

본 연구는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해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을 살펴보고, 빈곤아동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빈곤아동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결핍을 경험하지만 소득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접근법만으로는 박탈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타운젠트의 상대적 빈곤 이론에 기반하여 소득과 생활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빈곤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이용해 한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다차원 빈곤지표를 제시하였다.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 식생활, 건강, 교육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섯 가지 변수로 다차원 박탈지표를 구성한 뒤 다차원 박탈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생활수준과 소득기준을 고려한 빈곤기준선에 따라 아동빈곤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기준 절대빈곤율보다 더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소득기준만으로 측정했을 때 상당수의 빈곤아동들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빈곤의 원인이 되는 가구주 특성, 가구원 특성, 지역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아동빈곤가구가

* Acknowledgment: 본 연구에 대해 조언해주신 Prof. David Gordon과 Dr. Shailen Nandy 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PSE UK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한계나 문제점은 전적으로 저자 본인의 책임임을 밝혀둡니다.

** Visiting fellow, Centre for the Study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Townsend Centre for International Poverty Research), University of Bristol, U.K.(joanne0427@hanmail.net).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한 결과, 농어촌 지역, 여성 가구주, 한부모 가정인 경우,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조손가정, 고용불안정 가구 등에서 아동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빈곤측정 방식의 개선을 통해 복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과 나아가 아동빈곤정책의 목표대상집단을 세분화하여 지원책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박탈, 아동빈곤, 다차원 빈곤, 아동정책

1. 서론

여전히 열 명 중 한 명의 아이들이 비위생적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고, 스무 명 중 한 명은 배고픔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¹⁾(보건복지부, 201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3).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아동빈곤 문제는 비단 저개발 국가만의 사회문제가 아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아동빈곤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서구 선진국 역시 전례 없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아동빈곤율이 21%, 영국은 약 18%에 달하는 등 세계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아동빈곤율이 증가한 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Joseph Rowntree Foundation, 2014; OECD, 2014).

이렇듯 저개발국가에도, 개발도상국에도, 선진국에도 빈곤은 존재하며 그 모든 국가들에서 빈곤, 특히 ‘아동빈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정책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빈곤을 완전히 ‘퇴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회에 얼마만큼의 빈곤층이 있는가?’, ‘빈곤가구는 어떠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빈곤인구의 수와 그들이 처한 생활의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빈곤퇴치의 출발점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소득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생활환경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빈곤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빈곤선만으로는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는 빈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주거빈곤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빈곤가구의 아동이 129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18세미만 취학아동 중 결식위험에 처해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의 수가 2008년 415,519명, 2010년 485,811, 2013년 416,092명이다. 이를 전체 아동인구수에 대비하여 보면 주거빈곤 아동은 약 10%, 결식위험 아동은 약 5%에 달한다.

곤아동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정은희, 2014). 예를 들어,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한국의 공식 아동빈곤율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지만,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식생활, 교육자원, 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UNICEF 아동결핍지수(child deprivation index)로 빈곤상태를 측정한 결과 한국 아동들의 결핍의 정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는 특히 아동빈곤에 있어서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들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소득과 생활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아동빈곤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둘째, 물질적 박탈과 소득수준이 모두 일정 수준 이하에 처해 빈곤아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아동들의 가구특성을 분석하여 아동정책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아동빈곤에 대한 논의에 앞서 먼저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박탈 정도를 통해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을 개념규정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었다. 심지어 빈곤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Alcock, 1993; 정원오, 2008에서 재인용). 빈곤이란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신동면, 2008). 또한 빈곤측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빈곤상태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이라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론에 기반하여 과학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사회문화적으로 합의 가능한 빈곤측정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Gordon, 2006). 과학적으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 개념을 발전시킨 영국의 피터 타운젠트(Peter Townsend)의 노력을 들 수 있다. 타운젠트는 1901년 라운트리(Rowntree)의 빈곤연구(Poverty: a study of town life) 이래 널리 사용되어 왔던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 개념에 대응하여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 개념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Townsend, 1962; 1979). 그는 상대적 빈곤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여된 상태”라고 규정하였다(Townsend, 1962). 이때, 자원이란 단지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등을 모두 포괄하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감정적인 측면까지 연계하여 개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타운젠트는 상대적 박탈을 측정하기 위해 의식주, 건강, 교육, 주거환경, 근로조건, 가족생활,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하여 사회적 박탈지표를 도출하였다. 타운젠트의 학문적 유산 위에서 이후 합의적 방식 (consensual method)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결핍을 박탈로 볼 것인지 그 정도를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Mack & Lansley, 1985).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필수재(necessities)라고 합의한 물질적, 비물질적 항목에 기반하여 일정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갖추지 못하는 것을 빈곤으로 규정하고 빈곤율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빈곤측정 방법은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핀란드, 스웨덴, 호주,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과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에서 시도되고 있다²⁾.

이와 같이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빈곤을 소득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여전히 소득집근법에 기반하여 빈곤층을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계측에 기반하여 빈곤선을 책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계에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빈곤측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지속해왔다. 소득기준으로 빈곤선을 계측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조성한, 2010), 욕구를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시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혜자 외, 2014; 이현주 외 2012; 정의진, 2012). 또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상대적 박탈을 합의적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한 시범적인 연구들도 있었다(이승기, 2006; 이상일, 2008; Kwak, 2014). 한편으로는 빈곤의 개념을 평등과 시민권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확장시킨³⁾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라는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와 나아가 이를 반영하여 새롭게 빈곤을 측정하고자 실증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이 있었다(강신욱 외, 2005; 강신욱, 2006).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생활수준까지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적 방식으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빈곤측정을 위한 공식적인 지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이 있는 가구가 겪

2) 상대적 박탈의 개념에 기반하여 합의적 방식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리스트와 상세한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http://poverty.ac.uk/pse-research/international-research> 참조할 것.

3) 사회적 배제란 개념이 평등과 시민권과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측면에서 시민권의 부족, 정치적 측면에서 의사결정과정으로 부터의 배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Berghman, 1995; Levitas, 1999; Saunders, 2003; 강신욱 외, 2005; 이주하, 20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는 빈곤을 측정하는 새로운 분석틀이자 사회정책의 이론적 기초로 활용되어 왔다(De Haan, 2000).

는 빈곤과 박탈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정은희 외, 2013). 또한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은 그 수혜가구와 예산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서 관심이 미약한 편이므로(김미숙·배화옥, 2007) 아동빈곤에 관한 정책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차원 빈곤의 개념과 측정방식을 활용하여 인구집단 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빈곤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다차원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개념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이론적 논의를 소개한다. 그리고 한국의 아동빈곤측정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가 다차원 아동빈곤지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한다. 4장에서는 새로운 지표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한다. 5장에서는 한국의 아동빈곤 현황을 측정된 결과를 제시하고, 아동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6장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아동빈곤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한다.

2. 아동빈곤 측정방법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한국의 아동빈곤 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1) 다차원적 빈곤측정방법으로 접근하는 아동빈곤

아동빈곤은 그 원인이 본인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Duncan & Brooks-Gunn, 1997; 정은희, 2014에서 재인용). 10대 청소년들의 비행과 아동빈곤의 상관관계가 높을 뿐만 아니라(Buchel, Joakim, Krause & Wagner, 2003; 정은희, 2014에서 재인용), 아동빈곤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성인이 된 이후 실업에 처할 위험 또한 높아지므로 빈곤이 대물림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Becker, 1981; Gregg & Machin, 2003; 정은희, 2014 재인용).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자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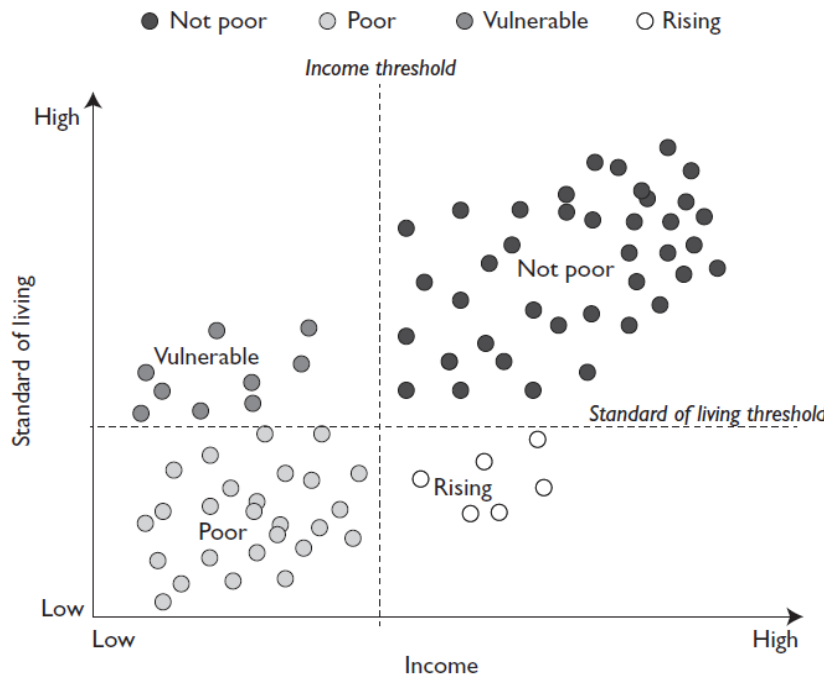
그런데 아동빈곤은 보다 근본적으로 인권차원(human rights framework)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N은 1989년에 아동권리협약(UNCRC, UN Convention on Child Rights)을 채택함으로써 ‘아동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차별 받지 아니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2002년 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아동빈곤은 기본적인 인권을 위배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Chinkin, 2001; Pemberton, Gordon & Nandy, 2012; Robinson, 2002). 특히 2000년 새천년개발계획(MDGs) 채택 이후 빈곤율 감소와 사회개발에 관한 관심이 증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아동빈곤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아동인구에 특화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지표가 미비하였다(Gordon & Nandy, 2012).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UN의 아동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은 2003년부터 ‘Bristol approach’라는 아동빈곤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Gordon, Nandy, Pantazia, Pemberton & Townsend, 2003). Bristol approach 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Bristol approach는 생활수준의 박탈 정도를 통해 빈곤을 측정한다. 이는 타운젠트의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에 관한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빈곤연구의 대가인 타운젠트는 빈곤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빈곤의 동태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소득(income)뿐만 아니라 소득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다른 변수, 즉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통해서 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결정한 뒤 빈곤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Townsend, 1979). 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나아가 적절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참여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여 박탈지표를 구성함으로써 이를 측정할 수 있다(Gordon et al., 2000).

다음 [그림 1]에서 생활수준과 소득기준선 두 가지를 결합하여 빈곤을 측정할 경우, 어떻게 빈곤의 동태적인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생활수준이 모두 낮은 그룹은 빈곤층(Poor)이고, 두 가지 모두 높은 그룹은 비빈곤층(Not poor)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생활수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고려할 경우 두 가지 집단을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소득은 낮는데 생활수준이 높은 그룹과 소득은 높는데 생활수준이 낮은 그룹이다. 이 두 집단이 바로 빈곤으로 추락하는 그룹(sinking into poverty)과 빈곤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룹(climbing out of poverty)이다. 소득은 낮는데 생활수준이 높은 그룹

을 취약그룹(vulnerable)이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이 낮아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동안은 그 이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빈곤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애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득도 낮고 생활수준도 낮아지는 빈곤상태가 된다. 이후 만일 재취업이 되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생활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줄어든 만큼의 소득을 다시 비축하여 생활수준을 이전상태로 돌리기까지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소득은 높아졌더라도 생활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승(rising)그룹이 되는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한 개인을 종단면적으로 추적해보면 소득변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또, 특정 시점에 사회 전체를 횡단면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Gordon et al., 2000; Pantazia, Gordon & Levitas, 2006).

[그림 1] 생활수준과 소득을 고려하여 정의한 다차원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



출처: Pantazis et al.(2006: 39).

둘째, Bristol approach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아동빈곤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출발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아동인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빈곤측정지표를 구성할 때 어떤 차원(dimension)을 지표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빈곤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연관되는 문제이다. 때문에 Bristol approach는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117개국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빈곤에 관한 정의에 기반하여 차원(dimension)을 설정하였다(Gordon & Nandy, 2012). UN 합의에 따르면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needs)를 심각하게 박탈당한 상태를 의미하며, 기본적인 욕구를 ‘음식(food), 안전한 식수(safe drinking water), 위생시설(sanitation facilities), 건강(health), 주거(shelter), 교육(education) 그리고 정보(information)’등 7가지로 규정하고 있다(UN, 1995: 57). 이에 기반하여 Bristol approach는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7가지 기본적인 욕구의 범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박탈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1]과 같이 아동이 누려야 하는 7가지 기본적 욕구에 관한 박탈지표를 구성하고 각각에 대해 심각한 수준(severe deprivation)의 박탈을 의미하는 빈곤기준선을 설정하였고⁴⁾, 7가지 차원 중에서 2개 이상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에 처한 아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아동빈곤의 개념정의는 이후 2006년 UN 총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아동빈곤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아동보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문의 기반이 되었다. UNICEF와 Bristol approach 연구를 바탕으로 UN은 아동빈곤을 ‘영양(nutrition), 식수(water)와 위생시설(sanitation facilities),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basic health care services), 주거(shelter), 교육(education), 참여와 보호(participation and protection)등이 박탈된 상태’라고 정의 내렸다(UNGA, 2006). 또한 Bristol approach 에 기반하여 7대륙 50여 개 국가에서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국제비교연구 <Global Study on Child Poverty and Disparities>가 실시되었다(UNICEF, 2007).

4) 박탈(deprivation)은 그 정도에 따라 극단적 수준(extreme deprivation), 심각한 수준(severe deprivation), 중간 수준(moderate deprivation), 약한 수준(mild deprivation), 박탈이 없는 경우(no deprivation) 등으로 연속선상(continuum)에서 구분해 볼 수 있다(Gordon, 2002). 어떤 수준을 심각한 수준의 박탈로 볼 것인지 심각성의 정도(levels of severity)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주제가 될 정도로 여러 국가들의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Nandy, Irving, Gordon, Subramanian & Smith, 2005).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표 1]의 기준선이 책정되었다.

[표 1] UNICEF 아동빈곤 국제비교연구에서 정의하는 다차원적 박탈지표와 기준선

박탈 (Deprivation)	덜 심각한 박탈의 기준선(less severe)	심각한 박탈의 기준선(severe)
주거 (Shelter)	방 1개당 4인 이상이 거주하는 집에 살거나, 바닥재나 지붕이 적절하지 못한 집에 사는 아동	방 1개당 5인 이상이 거주하는 집에 살거나, 바닥재가 없는 집에 사는 아동
위생 (Sanitation)	비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	화장실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아동
식수 (Water)	비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하는 아동 (예. 공동우물 혹은 물 길인데 30분 이상 걸리는 식수원을 이용하는 경우)	강, 연못, 호수 등 표층수를 사용하거나 물 길인데 30분 이상 걸리는 식수원을 이용하는 아동
음식/영양 (Food)	국제표준에 비해 발육(나이 대비 키), 체력저하(키 대비 몸무게), 저체중(나이 대비 몸무게) 상태가 -2 표준편차 이하인 아동	국제표준에 비해 발육(나이 대비 키), 체력저하(키 대비 몸무게), 저체중(나이 대비 몸무게) 상태가 -3 표준편차 이하인 아동
보건 (Health)	2세까지 여덟 가지 기본적인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	백신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 또는 호흡기 감염/설사 같은 병에 의료처치를 받지 못한 아동
교육 (Education)	7~17세 아동 중에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	7~17세 아동 중 학교를 전혀 가본 적이 없거나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아동
정보 (Information)	3~17세 아동 중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접근할 수 없는 아동	3~17세 아동 중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신문, 컴퓨터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아동

출처: UNICEF(2007), Global Study on Child Poverty and Disparities 2007~2008 Guide.

2) 한국의 아동빈곤측정에 관한 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연구들이 아동빈곤을 물질적 박탈 정도에 기반하여 측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주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측정된다. 한국의 아동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로 정의되며, 아동빈곤율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빈곤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김미숙, 2008; 정은희, 2015). 비록 아동빈곤의 정의 자체는 ‘생활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라고 규정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빈곤율을 추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득’이다. 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그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절대적 아동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일 경우를 기준으로 상대적 아동빈곤율을 추정한다.

또한 한국의 아동빈곤에 관한 연구들은 아직은 주로 아동빈곤의 원인, 혹은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류연규, 2003; 김미숙·배화옥, 2007).

아동빈곤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 작성 또한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어, OECD에 아동빈곤수준에 대한 국가통계를 제출한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김미숙·배화옥, 200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 최초로 전국단위의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매 5년마다 아동복지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도 아동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가령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아동빈곤가구의 수를 추정한 결과, 빈곤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정은희, 2015).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기준 절대적 아동빈곤율이 9.45%인데, 중위소득 50% 미만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0.6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가구의 약 4%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아동인구 중 약 6% 내외의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빈곤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여전히 소득기준으로만 빈곤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소득기준이 아니라 생활수준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박탈지수를 활용하여 아동빈곤을 측정하려고 한 연구로는 정은희(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제7차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주거, 식생활, 교육, 의료, 고용, 근로능력, 금융 등 7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고자 했다. 잠재집단모형에 따라 빈곤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다차원적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은 소득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할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차원적인 박탈지표로 한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고 아동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지표에 고용, 근로능력, 금융상태 등 부모의 경제활동 능력을 측정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여 박탈지표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지표라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다차원 빈곤지표를 이용해 아동들의 물질적 결핍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는 이미 EU 소속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들에도 적용되어 아동이 겪는 물질적 결핍의 원인을 연구하거나, 결핍으로 초래되는 아동들의 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Aya, 2010; Lau et al., 2014; Qi & Wu, 2014; Wong et al., 2015). 나아가 빈곤아동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아동들까지 대상으로 하여 아동인구의 행복(happiness index)과 복지

(well-being index)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이봉주 외, 2013; Bradshaw et al., 2007; Bradshaw et al., 2011; Lau & Bradshaw, 2010; Martorano, 2013; UNICEF, 2013).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단순히 소득 자료만을 이용하여 아동빈곤을 측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차원으로 아동빈곤을 측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차원 빈곤의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다차원 빈곤에 의해 규정된 아동빈곤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빈곤정책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다차원 빈곤지표의 구성 및 타당성 · 신뢰성 검증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다차원 빈곤지표로 아동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보건복지부, 2009). 이는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전국규모의 종합실태조사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0세에서 18세까지 아동을 목표모집단으로 하여 6,923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반가구 4,154가구,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2,769가구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근거로 16개 시도별로 층화할당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고, 아동연령별로 집단을 나누어 유의할당을 실시하여 0~2세 집단, 3~5세 집단, 6~8세 집단, 9~11세 집단, 12~18세 집단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2단계 층화추출방식에 따라 표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8 조사 데이터에서는 표본추출방식을 고려하여 지역별, 아동연령별, 그리고 가구특성별(일반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가구)로 수집된 데이터가 모집단인 우리나라 아동 전체 인구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계산하여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위해서 위의 설명과 같이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계산된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한편, 2008년에 최초로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전국단위로 아동들의 발달상황과 복지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에 전국 16개 시도 4,007 가구

에 대해 두 번째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3년 조사에서는 아동결핍현황에 대한 국제연구의 조사항목을 준용하여 아동들의 물질적 결핍을 측정할 수 있는 14개 항목에 대해 질문하였다. 2015년부터 일반 연구자에게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⁵⁾ 비록 2008년 데이터가 최신 자료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UN이 규정한 아동빈곤의 개념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거, 보건, 교육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2) 다차원 박탈지표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UNICEF 국제비교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차원 빈곤지표(Bristol approach)를 참고하되, 한국의 상황에 맞게 차원(dimension)과 구성변수들을 조정하고,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출 가능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Bristol approach는 주거, 식수, 위생시설, 영양, 보건, 교육, 정보 등 7가지 범주에서 박탈을 측정하는데,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 국가별 상황에 따라 아동노동 여부를 박탈지표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책과 장난감과 같은 교육자료들의 박탈여부를 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국가별 맥락에 맞게 세부적인 변수들을 조정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Roelen & Gassmann, 2012).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7가지 차원 중에서 저개발국가의 상황에 맞게 개발되어 한국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변수, 가령, ‘식수 및 위생시설’과 같은 범주는 제외하였다. 또한 ‘정보’에 관한 데이터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이를 제외하였다. 무엇보다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생존권으로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 기본적인 보건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고, 아동의 발달권으로 교육을 받고 잠재능력을 발휘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할 때 건강, 주거,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영역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정은희, 2014), 최종적으로 ‘주거, 식생활(영양), 보건, 교육’ 등 네 가지 차원으로 다차원 박

5) 본 연구를 진행할 시점에서는 이 자료가 일반 연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이후 연구자에게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있어 향후 최신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 묻고 있는 항목들에 한계가 있다. 영국이나 홍콩 등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선정된 30개, 21개의 아동들의 필수재(necessities)를 묻고 있는 반면에, 2013년 조사는 UNICEF 조사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여 14개 항목만 질문하고 있어 아동들의 다양한 물질적 결핍현황을 살펴 보기에는 항목 자체가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구의 주거현황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이 아동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차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탈지표를 구성하였다.

다음 [표 2]와 같이 네 가지 차원 아래 다섯 가지 구성변수로 박탈여부를 측정하였다. 첫째, 주거(shelter) 차원에서는 주거상태에 대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주거상태가 열악한 곳에 거주하는 아동을 주거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임시가건물, 비닐하우스, 점포주택,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이 주거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식생활/영양(food/nutrition) 차원에서는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가구에 속한 아동을 식생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설문문항 중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년 동안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먹을 것이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가구에 속한 아동을 식생활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보건(health) 차원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은 가구에 속한 아동을 의료서비스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항목이 있는데 이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여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측정하였다. Bristol approach에서는 보건과 관련하여 영유아 백신접종 여부를 통해 박탈 여부를 측정하는데, 이는 의무 백신접종율이 높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접근권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의료 박탈 여부를 측정하였다. UN의 2006년 아동빈곤에 대한 정의에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제시하고 있는데다가 선행연구에서도 국가별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해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건의로 범주의 박탈지표로 활용하는 전례를 참고하였다(Notten, Neubourg, Makosso & Mpou, 2012). 또한 국내 연구 중에서도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의료빈곤의 중요한 잣대로 보고 건강(health) 차원의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였다(김혜자 외, 2014).

넷째, 교육(education) 차원에서는 두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다. 저개발국가의 아동빈곤을 측정할 때는 초등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혹은 나이에 적합한 정규교육과정을 다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박탈지표로 활용하지만,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법제화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초등학교 등록여부를 통해 교육기회 박탈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자원이 보장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자원(educational resources)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교육자원에 대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

정하기 위해서 설문항목 중에 아동이 교과서 이외 책을 몇 권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 중 10권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 기본적 교육자원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UNICEF 아동결핍지수에서도 교과서 이외 도서보유 여부로 아동의 교육자원 결핍 여부를 측정하고 있으며(Roelen & Gassmann, 2012; UNICEF, 2012), 국내 연구에서도 교과서 이외 도서보유 권수를 이용해 아동의 교육자원박탈을 측정하는 선행연구(이봉주 외 2013; Lee, 2013)가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교육자원 박탈여부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 범주에 속하는 또 다른 변수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묻은 항목을 활용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아동빈곤에 대한 연구에서는 방과 후 과외활동(Extra education/After-school tutoring)이 교육성과의 주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 입증되었고 이를 박탈지수 중 하나로 조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과 후 교육활동 여부를 지표에 포함시켰다(Bramley & Besemer, 2011). 설문에서 민간학원이나 사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실까지 모든 종류의 활동을 망라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방과 후 교육활동도 하지 않는 아동을 박탈된 상태로 측정하였다⁶⁾.

그런데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연령집단 별로 설문항목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는데, 특히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 영유아 아동집단(0~5세), 유치원 및 초등학교 이상 아동집단(6~18세)에 대한 설문조사가 달랐다. 예를 들어, 0~5세 아동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유사한 항목이 있으나 책 보유 현황이 아니라 장난감 보유현황에 대해 질문했고, 또한 방과 후 교육활동 여부가 아니라 보육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때문에 주거, 식생활, 의료서비스 박탈에 대해서는 0~18세 아동가구를 모두 분석할 수 있지만, 교육 차원에 대한 항목까지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다차원 박탈지표를 구성할 때는 6세 이상, 즉 학령기 이후의 아동연령집단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표본 중에서 6-18세 아동을 둔 가구인 4,654가구만을 분석하여 다차원 빈곤율을 보고하였다.

6)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습과 관련된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방과 후 과외활동 중 학습자 교육과 예체능사교육을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 이를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을 차별화해서 변수를 구성할 수 없었고 단지 방과 후 과외활동을 하는지 여부만을 이용해 박탈지표를 구성하였다. 한국의 교육현실을 고려할 것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표 2] 다차원 박탈 지표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차원 (Dimension)	구성변수 (Component)	조작적 정의 및 측정방법
주거 (Shelter)	주거 박탈 (Shelter deprivation)	▶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 - 주거환경에 대한 설문 중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함
식생활/영양 (Food/Nutrition)	식생활 박탈 (Food deprivation)	▶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아동 - 먹을 것이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충분한 양으로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함
보건 (Health)	의료서비스 박탈 (Health service access deprivation)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가구의 아동 - 공적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함
교육 (Education)	교육자원 박탈 (Education resource deprivation)	▶ 교과서 이외 책을 10권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아동(6세~18세 대상) - 교과서 외 책 보유 권수가 10권 이하인 경우,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함
	방과후 교육활동 박탈 (Extra-education deprivation)	▶ 방과 후 교육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아동(6세~18세 대상) - 방과 후에 민간 학원, 사교육, 방과 후 학교, 사회복지관 등의 방과 후 교실, 친인척에 의한 방과 후 활동 중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경우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함

4. 다차원 빈곤 측정 지표의 검증과 빈곤선 추정

1)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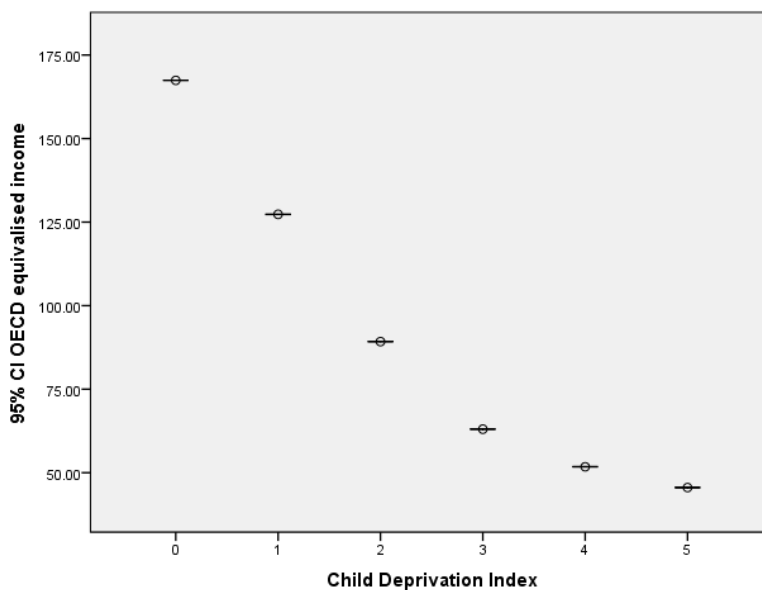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구성한 다차원 빈곤측정치표가 과연 아동빈곤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과학적인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 그리고 지표가 소득과 누적적(additive)인 관계인지 세 가지 단계를 거쳐 검증해야 한다(Gordon & Nandy, 2012: 77).

첫 번째 단계로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박탈을 측정한 지표와 소득을 비교분석하여 박탈을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Gordon & Nandy, 2012: 84-87).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는 시장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에 사회보험 및 기초보장급여와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된 경상소득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담금과 조세를 제외한 가처분소득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경상소득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OECD 가구소득 균등화지수(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⁷⁾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⁸⁾. 그 결과 [부록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섯 개의 구성변수 모두에서 박탈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1 참조).

두 번째 검증단계는 다섯 개 변수들을 하나의 지표로 묶을 수 있는지 그 신뢰성(reliability)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고전적인 방법인 Cronbach's alpha 값을 활용하여 검증한다(Gordon & Nandy, 2012: 84). 다섯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74로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0.7을 넘었다(Nunnally, 1981). 따라서 다섯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박탈을 측정하는 지표가 아동빈곤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다차원 박탈 집단별 가구균등화 소득



세 번째 검증단계는 박탈지표들이 소득과 연계해 비교해 볼 때 누적적인지(additive)를 확인하는 것이다(Gordon & Nandy, 2012: 87-92). 다시 말해, 다섯 가지 구성변수가 있다고

7) 본 연구는 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 을 사용하여 첫 번째 성인은 1, 두 번째 성인은 0.5, 14세 이상 아동은 0.5, 14세 이하 아동은 0.3 의 값을 부여하였다. 남상호(2012)에 따르면 어떤 척도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상대빈곤율이 달라질 수 있다. Oxford scale 이라고 불리는 기존 OECD equivalence scale, 1990년대 수정된 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 Square root scale 세 가지 척도 중에서 Square root scale 를 사용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고, 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 Oxford scale 순으로 빈곤율이 낮아졌다. 따라서 세 지표 중 탄력성이 중간정도인 OECD modified equivalence scale 을 사용하였다.

8) 이때 상하위 극단값은 경계값으로 대체하여 다시 코딩하였다. 하위 값 중 균등화 가구소득 평균값의 1% 이하는 그 경계값으로 Bottom-coding하고, 상위값 중 평균소득의 중위값 10배 이상 역시 그 경계값으로 Top-coding하였다.

할 때, 두 가지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에 비해 세 가지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의 소득이 더 낮아야 한다. OECD 가구균등화 척도를 활용하여 산출한 가구소득과 그 가구의 아동이 겪고 있는 박탈지표의 수를 비교하여 본 결과 앞의 [그림 2]와 같이 박탈을 경험하는 수가 늘어날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래프상에서 구분점(break point)이 생기는데,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소득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최적의 빈곤기준선 추정

이상과 같이 박탈지표의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고 소득과도 누적적인 관계임을 확인했다면, 끝으로 최적의 빈곤기준선(optimum poverty threshold)을 추정한다. 최적의 빈곤기준선은 집단 내 차이(within-group)를 최소화하고 집단 간 차이(between-group)를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앞서 박탈경험의 개수와 소득을 비교한 [그림 2]를 통해서 볼 때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아동과 1개 이하 박탈을 경험하는 아동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적 방식에 따른 빈곤측정법에서는 다시 한 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NOVA와 Logit 분석을 실시한다(Pantazis et al., 2000: 66-69).

먼저, 박탈을 경험한 개수에 따라 ① 박탈을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 ② 1개 이상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집단(Deprivation score of 1 or more), ③ 2개 이상(Deprivation score of 2 or more), ④ 3개 이상(Deprivation score of 3 or more), ⑤ 4개 이상(Deprivation score of 4 or more), ⑥ 5개 이상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집단(Deprivation score of 5 or more)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종속변수를 가구소득으로, 독립변수는 박탈 개수에 따라 구분된 집단으로 하고, 가구당 성인의 수와 아동의 수를 통제한 뒤 순차적으로 ANOVA 분석을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분석에서는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그 이외 집단을 비교하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1개 이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집단과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집단 간 분석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때, 편차제곱의 합(sum of squares)에 따라 F 검정통계량이 계산되는데 그 원리와 공식을 이용하면 어느 지점에서 빈곤기준선을 구분할 수 있을지 추정이 가능하다(Pantazis et al., 2000: 66). 아래 [표 4]를 보면, F 검정통계량이 점차 증가하다가 ‘2개 이상 항목에서(Deprivation score of 2 or

more) 박탈을 경험한 집단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F 검정통계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F 검정통계량은 분자는 집단 간(between group)의 편차제곱의 합, 분모는 집단 내(within group) 편차제곱의 합을 이용해 계산된다. 따라서 F 검정통계량이 가장 커지는 지점이 분모 값인 집단 내(within group) 편차제곱의 합이 최소이고, 분자값인 집단 간(between group)의 편차제곱의 합이 최대인 지점으로서 기준선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2개 이상 박탈을 경험한 집단을 기준으로 집단 내 차이는 최소화되고 집단 간 차이는 커지는 구분점이 결정되며, 이는 앞서 소득과 박탈항목 수에 따른 집단을 비교한 [그림 2]의 결과와 동일함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박탈 개수에 따라 구분한 집단(deprivation group)을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가구 내 아동 및 성인의 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로짓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가구소득과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박탈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한다(Gordon & Nandy, 2012: 91). 이 경우 역시 로짓분석의 모형적합도(goodness of fit)를 보여주는 Chi-square 값이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한 집단일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결과 모두를 통해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하는 집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적의 빈곤기준선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표 4] 최적 빈곤기준선 추정을 위한 ANOVA, Logit 분석 결과

Model	F statistics for corrected ANOVA model	Logistic Regression model Chi-square
Null model*	174.754	
Deprivation score of 1 or more	813.958	2435.519
Deprivation score of 2 or more	975.301	4140.396
Deprivation score of 3 or more	587.628	2933.706
Deprivation score of 4 or more	281.890	1236.680
Deprivation score of 5 or more	153.626	330.452

* 주: Null model 에는 가구 내 아동의 수와 성인의 수만을 변수로 분석한다.

또한 합의적 방식에 따른 빈곤측정법에서는 소득빈곤 기준선(income poverty threshold)을 정할 때, 최적의 빈곤기준선으로 추정되는 박탈집단의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오차범위의 상위값을 소득빈곤의 기준선으로 본다(Gordon & Nandy, 2012: 92). 본 연구의 경우 2개 이상

박탈을 경험한 집단의 평균소득을 구한 뒤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의 상위값(upper bound)을 소득빈곤의 기준선으로 결정하였다. OECD 균등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본 연구의 데이터에서는 기준값이 9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이를 소득빈곤층을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삼았다.

5. 분석결과

1) 다차원 빈곤지표에 따른 아동의 물질적 결핍 및 빈곤율

주거, 식생활, 의료서비스, 교육 차원에서 아동들의 물질적 박탈 경험을 측정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교육 차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기 위해 6~18세의 아동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 추정해보았을 때, 학령기 이후 아동 중에서 약 8.2%(약 70만 명)가 주거결핍을, 16.2%(약 136만 명)가 식생활 박탈을 8.0%(약 68만 명)가 의료서비스의 결핍을 겪고 있으며, 기본적인 교육자원의 결핍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13.0%(약 111만 명),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결핍을 겪고 있는 아동이 13.6%(약 1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가지 구성변수 중에서 식생활과 기본적인 교육자원,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한 결핍 비율이 주거, 의료서비스 접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⁹⁾. 그러나 해석에서 주의 기울여야 할 부분은 합의적 방식에 따라 결핍을 측정할 때는 단지 보유여부(have or don't have)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지지 못하는 경우(don't have and can't afford)인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원하지 않아서 가지지 않는 경우(don't have but don't want)를 구분하여 조사해야만 한다. 그러나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단지 각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조사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물질적 결핍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9) 주거, 식생활, 의료서비스 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0~18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핍현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008년 기준 0~18세 전체 아동의 수는 약 1,135만 명인데, 이 중 약 7.8%(약 89만 명)가 주거박탈을 경험하고 있고, 14.6%(약 162만 명)가 식생활의 박탈을 그리고 6.9%(약 78만 명)가 의료서비스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다차원 박탈지표에 따른 결핍현황

[아동연령별]	주거 박탈	식생활 박탈	의료서비스 박탈	교육자원 박탈	방과 후 교육활동 박탈
12~18세	9.2%	18.4%	9.6%	18.1%	20.1%
9~11세	6.7%	16.0%	6.8%	7.5%	5.8%
6~8세	7.1%	10.4%	4.8%	5.0%	4.1%
3~5세	7.0%	10.5%	4.3%	-	-
0~2세	6.5%	8.4%	3.0%	-	-
6~18세 아동 중 박탈아동 비율	8.2%	16.2%	8.0%	13.0%	13.6%
추정 아동 수	699,499명	1,366,842명	684,470명	1,112,974명	1,161,588명

* 주: 모집단이 되는 2008년 기준 6~18세 아동의 수는 857만 명임. 추정아동 수는 데이터에 제공된 인구센서스에 기반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앞서 최적의 빈곤기준선 추정단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차원 박탈지표 중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을 기준선으로 하여 심각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1개 이하의 항목이 결핍된 경우 박탈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2개 이상의 항목이 결핍된 경우 심각한 수준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6~18세 아동인구 중에서 14.7%(약 126만 명)가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박탈을 경험하여 생활수준에 있어서 결핍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다차원 박탈지표로 살펴본 결핍아동 현황(6~18 세 아동집단)

	빈도수	비율(%)
박탈경험 없음(Not Deprived)	7,307,020	85.3
2개 이상 박탈 경험(Deprivation score of 2 or more)	1,263,349	14.7
합계	8,570,369	100.0

* 주: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라 계산된 가중치 적용 (Weighted by Population weight).

단순히 소득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했을 때와 물질적 박탈과 소득을 동시에 종합하여 빈곤을 정의했을 때, 빈곤층뿐만 아니라 취약집단과 상승집단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활수준도 낮고(low standard of living), 소득도 낮은 경우(low income)를 아동빈곤가구(poor)로 정의한다. 생활수준은 낮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는 상승집단(rising), 생활수준은 높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는 취약집단(vulnerable), 생활수준과 소득이 모두 높은 경우는 비빈곤집단(Not poor)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 생활수준이 낮고(2개 이상 항목에서 박탈을 경

협), 균등화 가구소득이 92.5만 원 이하인 경우 빈곤(poor) 집단이고, 소득이 기준선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수준이 낮으면 상승(rising) 집단, 소득은 기준선 이하이지만 생활수준이 높으면 취약(vulnerable) 집단, 소득이 기준선을 넘고 박탈경험도 없으면 비빈곤(not poor)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아동빈곤을 측정하면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6~18세 아동인구 중 약 10.7%가 빈곤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상승집단(rising)은 3.8%, 취약집단(vulnerable)은 11.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공식적 빈곤율 통계와 비교해보면 단순히 소득기준만으로 빈곤율을 계산했을 때 아동빈곤율이 과소 추정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0~18세 미만 전체 아동가구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율을 계산한 경우, 아동빈곤율이 2008년에 약 5.3%(경상소득 기준)¹⁰⁾로 추정되며, OECD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하는 상대적 빈곤율에 따라 살펴보면 2008년의 아동빈곤율이 약 10.1%로 추정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소득과 생활수준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한 2008년 아동빈곤율(6~18세 집단)은 10.7%로서 소득기준 아동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표구성상의 이유와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6~18세 아동집단만을 분석하여 빈곤율을 도출했는데, 분석집단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 빈곤아동을 추정하는 것과 생활수준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추정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유효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8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일반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했을 경우, 6-18세 아동을 둔 가구 중 4.1%가 기초생활수급가정이고 5.8%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6~18세 아동집단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아동빈곤율이 10.7%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6.6%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속해 있다.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혹은 차상위계층 가구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아동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0) 본 연구에서 경상소득을 이용했으므로, 공식통계 중 경상소득 기준 아동빈곤율과 비교하였다.

또한 다차원 빈곤 지표에서는 빈곤층 이외에도 취약집단과 상승집단을 구분해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약집단은 소득은 낮지만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빈곤으로 빠져들고 있는 집단이고, 상승집단은 생활수준은 낮더라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승집단(3.8%)보다 취약집단(11.1%)의 비율이 높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상승(rising), 취약(vulnerable)계층까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복지정책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인구가 상당히 많지만 이들은 모두 복지혜택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경계에 있지만 사회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들을 파악하여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7] 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한 아동빈곤율(6~18세 아동집단)

	추정 아동인구(명)	비율(%)
빈곤(Poor)	918,461	10.7
상승(Rising)	329,305	3.8
취약(Vulnerable)	951,226	11.1
비빈곤(Not poor)	6,371,376	74.3
합계	8,570,369	100.0

* 주: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라 계산된 가중치 적용(Weighted by population weight).

2) 아동빈곤가구의 특성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목적은 아동빈곤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아동빈곤가구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소득기준과 물질적 박탈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정의한 아동빈곤가구는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구주 교육수준, 경제활동상태, 한부모가정 여부, 지역, 아동 성별, 가구 내 아동 수 등 아동빈곤의 원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집단 내에서 박탈율과 빈곤율을 계산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해 보았다¹¹⁾. 카이제곱검정을 통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다차원 박탈지표 중 2개 이상의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비율을 ‘박탈율’이라 명명하여 두 번째 열에 제시하였고, 박탈 정도와 소득을 동

11) 본 연구는 지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는 연구이므로 아동빈곤가구의 특성과 빈곤율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통계분석을 실시하지는 않고, 그룹 내 비율을 비교하여 집단 간 차이만을 보여주었다.

시에 고려하여 규정한 빈곤가구의 비율을 ‘빈곤율’이라 명명하여 세 번째 열에 제시하였다.

먼저 박탈율에 대해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는데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이 더 많은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농어촌 가구 중 21.3%의 아동들이 생활수준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아동 중 63.7%가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 중에서는 61.6%가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들의 박탈 정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가구주 교육수준이 중등학교 이하인 가구 중 58.4%가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 가구주의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해 볼 때,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 가구의 약 50%, 실업자 및 자활근로/공공근로 경제활동 가구의 52.4%가 아동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아동가구 중 60.7%가 물질적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별로 보았을 때 근소한 차이지만 남자 아동보다 여자 아동이 박탈의 정도가 약 0.7%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에 따라 살펴볼 경우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47%가 박탈을 경험하고 있어서 1 내지 3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 비해 박탈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물질적 박탈 여부를 모두 고려하여 규정한 빈곤율에 대해서도 동일한 가구특성 변수들을 이용해 분석해 보았다. 가구주 특성에 따라 빈곤율을 살펴보면 아동빈곤정책의 목표 수혜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약 15%가 아동빈곤가구인데 반해서 대도시에는 9.2%가 아동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55%가 아동빈곤가구이며, 한부모가정인 경우 57.2%가 아동빈곤가구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빈곤가구인 비율이 높아서, 가구주가 중학교 졸업 이하인 가구에서는 52.3%가 아동빈곤가구로 규정될 수 있다. 가구주가 임시직, 일용직 임금근로자인 집단은 42.7%가 아동빈곤가구이고, 실업자/자활근로 및 공공근로/비경제활동인 집단에서는 50.3%가 아동빈곤가구이다. 가구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 60대 이상이 가구주인 경우 57.7%가 아동빈곤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별에 따라 볼 때,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였으며, 가구 내 아동수가 4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 아동빈곤가구인 경우가 37%로서, 4명 이상 아동이 있는 가구 중 1/3 이상이 빈곤아동가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볼 때,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중 특히 여성가구주의 가정, 가구주의 근로형태가 불안정한 가정, 농어촌지역 조손가정인 경우 아동들이 빈곤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들을 정책의 목표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8] 아동빈곤가구의 특성(6~18세 아동 집단)

		박탈율 (Deprivation score of 2+)	빈곤율 (Poor)
도시/농촌 지역	대도시	13.3%	9.2%
	중소도시	15.0%	11.4%
	농어촌	21.3%	15.0%
가구주 성별	남	9.9%	6.0%
	여	61.6%	55.9%
한부모가정 여부(Lone-parent)	부모 모두	9.1%	5.3%
	한부모	63.7%	57.2%
가구주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이하	58.4%	52.3%
	고등학교 졸업	17.3%	12.6%
	대학교육 이상(4년제/전문대 포함)	5.8%	2.7%
가구주 경제활동	상근직 임금근로자	7.5%	4.2%
	자영업자	10.2%	5.1%
	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49.7%	42.7%
	실업자, 자활/공공근로, 비경제활동 인구	52.4%	50.3%
가구주 연령대	20대	7.5%	5.9%
	30대	9.9%	8.4%
	40대	14.3%	9.6%
	50대	24.1%	17.4%
	60대 이상	60.7%	57.7%
아동성별	남	14.1%	10.4%
	여	15.4%	11.0%
가구 내 아동 수	1명	14.5%	12.1%
	2명	13.1%	8.6%
	3명	18.7%	14.8%
	4명 이상	47.0%	37.0%

*주: 각 그룹 내 비율임(Percentage within each group); Chi-squares are all significant (**p<.01).

*인구가중치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Weighted by population weight)

6. 결론: 아동빈곤정책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빈곤을 측정함에 있어서 소득기준으로만 측정하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과 생활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다차원 빈곤지표로 빈곤을 측정하였다. 빈곤 아동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결핍을 경험하지만 소득접근법으로는 이러한 박탈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를 이용해 한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타운젠트의 상대적 빈곤 이론에 기반하여 소득과 생활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을 빈곤층으로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의 아동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주거, 식생활, 건강, 교육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다섯 가지 구성변수로 다차원 박탈지표를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다차원 박탈지표에 대한 타당성, 신뢰성을 검증하고, 최적의 빈곤기준선을 추정하였다. 또한 소득과 생활수준이 모두 낮은 집단, 즉 다섯 가지 변수 중에서 두 개 이상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소득도 낮은 집단을 빈곤층으로 규정하여 박탈현황과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박탈정도와 소득기준을 결합하여 새롭게 추정했을 때에는 아동빈곤율(6~18세 아동 기준)이 10.7%로 나타났다. 같은 데이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4.1%임을 고려해 볼 때, 상당수의 아동들(약 6.6%)가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아동빈곤의 원인과 관련이 높은 가구주 특성, 지역, 가구원 특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살펴본 결과, 농촌 지역, 한부모가정, 여성가구주, 고령가구주, 다자녀가구 등이 아동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은 최근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다. 아동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아동빈곤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은 GDP대비 0.8%(2009년 기준)로서 OECD 국가 평균 2.3%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아동복지정책이 일천한 상황이다. 또한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김미숙, 2013).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아동빈곤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소득기준으로 평가했을 때는 차상위계층 혹은 일반가구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수준의 박탈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에 따르면 빈곤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지출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집중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가구나 차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김미숙, 2013). 그러나 취약층(vulnerable), 상승집단(rising)으로 구분하는 본 연구의 방식에 따라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당수의 아동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빈곤아동을 파악하고 이들을 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아동빈곤지표를 추가로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농어촌 지역, 여성 가구주, 한부모 가정인 경우,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조손가정의 경우에 아동빈곤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에 따르면 2016년에는 빈곤아동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빈곤아동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대상집단을 세분화하여 지원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농어촌 조손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에 비해 빈곤율이 약 10배 정도 높았고,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과 빈곤에 처한 비율이 모두 약 3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농어촌 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주거지원 및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자원 지원 등 다차원 박탈지표의 구성요소가 되는 물질적 결핍을 보완해주기 위한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자 이외에도 임시직/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가구에서 아동빈곤율이 높다. 빈곤 아동이 속한 가구가 실업상태가 아니라 근로빈곤계층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최근 해외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Belfield et al., 2015). 근로빈곤 가구에 속한 아동들이 빈곤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단지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릴 수 없고, 또한 빈곤아동에 대한 책임을 가정에게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 정책 수립 시 빈곤위험에 처한 가구 내 아동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아동빈곤에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박탈, 행복, 웰빙 등의 개념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개념을 측정하여 아동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이상 직접적 방법으로 빈곤을 측정하고자 노력해온 영국이나 최근 이러한 측정방식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이웃 아시아 국

가들에 비해 한국에서는 물질적 박탈을 파악하여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물질적 결핍과 소득수준을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 빈곤 측정 방식으로 한국의 아동빈곤을 측정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가 최근 아동빈곤측정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는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 아동이 겪고 있는 박탈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생활수준에 따라 물질적 결핍과 아동빈곤 현황을 파악할 경우 빈곤아동들이 어떤 분야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최신조사인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아니라 200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이용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 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차원빈곤 측정에 관한 지표구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재(necessities)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합의적 방식(consensual method)에 기반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질문 구성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핍(affordability)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차원 아동빈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하는 후속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1.
- _____(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2008). 한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9, 5-22.
-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 보건사회연구. 27(1), 3-26.
- 김혜자, 박지영, 고난란, 진나연, 김정은(2014).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 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4(1), 5-51.
- 남상호(2012). 가구균등화 척도가 상대빈곤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1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2.
- 류연규, 최현수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아동복지학. 16, 135-165.
- 보건복지부(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 _____(2013). 아동급식지원 현황.
- 신동면(2008). 동아시아 국가의 공공부조. 파주: 집문당.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연정, 이주연(2013). 쉽게 알아보는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이봉주(2013).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이상일(2008). 상대적 박탈의 논리와 소득의 차원을 비교적으로 적용한 빈곤선의 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185-224.
- 이승기(2006). 소득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와 박탈기준에 의한 빈곤가구의 가구구성에 있어서의 차이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6, 37-54.
- 이주하(2011). 빈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이해. 한국사회정책. 18(1), 11-42.
-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원오(2008). 박탈과 주관적 빈곤의 개념적 유용성 검토. 제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논문집. 145-161.
- 정은희(2014).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2015).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20, 49-57.
- 정은희, 최세은, 이상균, 하태정(2013). 우리나라 아동빈곤의 특성.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정의진(2012). 한국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구조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한(2010).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사회와 행정*. 20(3). 1-24.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3).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2년 빈곤통계연보*.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_____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lcock, P. (1993). *Understanding poverty*. Basingstoke, England: Houndmills: Macmillan.

Abe, A. (2010). Social exclusion and earlier disadvantages: An empirical stud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Japan.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3(1), 5-30.

Becker, G.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Belfield, C., Cribb, J., Hood, A. & Joyce, R. (2015). *Living standards, poverty and inequality in the UK: 2015*. Lond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G. Room(ed.) *Beyond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cy Press.

Bradshaw, J., Hoelscher, P. & Richardson, D. (2007).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the European Un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1), 133-177.

Bradshaw, J., Keung A., Rees, G. & Goswami, H. (2011).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ternational comparative perspectiv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4), 548-556.

Bramley, G. & Besemer, K. (2011). Indicators of access to cultural resources, education and skills for the PSE survey. *Working paper-methods series No. 5*.

Buchel, F., Joakim, F., Krause, P. & Wagner, G. (2003). Impact of poverty on children's school attendance: Evidence from West Germany. In K. Vleminckx & T.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 Bristol, UK: The Policy Press, 151-174.

Chinkin, C. (2001).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the elimination of poverty: What role for international law? *Current Legal Problems*, 54(1), 553-589.

De Haan, A. (2000). Social exclusion: Enriching the understanding of deprivation. *Studies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2(2), 22-40.

Duncan, G. & Brooks-Gunn, J.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Gordon, D. (2006).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overty. In C. Pantazis, D. Gordon & R. Levitas(ed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Bristol: The Policy Press.

- Gordon, D., Adelman, L, Ashworth, K., Bradshaw, J., Levitas, R., Middleton, S., Pantazis, C., Patsios, D., Payne, S., Townsend, P. & Williams, J. (2000).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Gordon, D. & Nandy, S.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and deprivation. In A. Minujin & S. Nandy(eds). *Global child poverty and well-being: Measurement, concepts, policy and action*.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Gordon, D., Nandy, S., Pantazia, C., Pemberton, S. & Townsend, P. (2003). *Child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Bristol, UK: Policy Press.
- Gregg, P. & Machin, S. (2003). Childhood experiences, educational attainment and adult labour market performance. In K. Vleminckx & T. Smeeding(eds). *Child well-being, child poverty and child policy in modern nations*. Bristol, U.K.: The Policy Press. 129-150.
- Joseph Rowntree Foundation(2014). JRF Data-Child poverty rate over time. (retrived on 31st, Mar, 2015).
- Kwak, Y. (2014). Adult necessities of life i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7(1). 41-57.
- Lau, M. & Bradshaw, J. (2010). Child well-being in the Pacific Rim. *Child Indicators Research*, 3(3). 367-383.
- Lau, M., Pantazis, C., Gordon, D., Lai, L. & Sutton, E. (2014).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Hong Kong: First results from the 2013 Living Standards Survey.
- Lee, B., Kim, S, Ahn J. & Yoo, P. (2013). Developing an index of child well-being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The 4th ISCI conference. Seoul: Korea.
- Levitas, R. (1999). Defining and measuring social exclusion: A critical overview of current proposals. *Radical Statistics*. 71. 10-27.
- Mack, J. & Lansley, S. (1985). *Poor Britain*. London: Allen & Unwin.
- Martorano, B., Natali, L., De Neobourg, C. & Bradshaw, J. (2013). Child well-being in advanced economies in the late 2000s. Florence: UNICEF Office of Research, *Working Paper 2013-01*.
- Nandy, S., Irving, M., Gordon, D., Subramanian, S. & Smith, G. (2005). Poverty, child under-nutrition and morbidity: New evidence from India.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3(3). 210-216.
- Notten, G., Neubourg, C., Makosso, B. & Mpou, A. (2012). A multidimensional profile of child poverty in Congo Brazzaville. In A. Minujin & S. Nand(eds). *Global child poverty and well-being: Measurement, concepts, policy and action*. Bristol: The Policy Press.
- Nunnally, J. (1981). *Psychometric theory*. New Delhi: Tate McGraw-Hill Publishing Company Ltd.

- OECD(2014).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retrieved on 2015. 3. 31.
- Pantazia, C., Gordon, D. & Levitas, R. (2006).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Bristol: The Policy Press.
- Pemberton, S., Gordon, D. & Nandy, S. (2012). Child rights, child survival and child poverty: The debate. In A. Minujin & S. Nandy(eds). *Global child poverty and well-being: Measurement, concepts, policy and action*, Bristol, UK: The Policy Press, 19-37.
- Qi D. & Wu, Y. (2014). Child poverty in China: A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approach, *Child Indicators Research*, 7(1), 89-118.
- Robinson, M. (2002). *Speech at the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South Africa.
- Roelen, K. & Gassmann, F. (2012). Multidimensional child poverty in Vietnam. In A. Minujin & S. Nandy(eds). *Global child poverty and well-being: Measurement, concepts, policy and action*. Bristol: The Policy Press.
- Saunders, P. (2003). Can social exclusion provide a new framework for measuring poverty? *SPRC Discussion Paper No. 127*. Sydney: Social Polic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Townsend, P. (1962). The meaning of pover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3(3), 210-227.
- ____ (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Harmondsworth, UK: Penguin.
- UN(1995). *The Copenhage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New York: United Nations.
- UNGA(2006).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ren: Report of the third committee*, New York: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UNICEF(2007). *Global study on child poverty and disparity 2007-2008: GUIDE*, New York: UNICEF.
- ____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Innocenti Report Card 10,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 ____ (2013).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arative overview*, Innocenti Report Card 11, Florence, : UNICEF Office of Research,.
- Wong, Y., Wang, T. & Xu, Y. (2015). Poverty and quality of life of Chinese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depr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4(3), 236-247.

Measuring Multidimensional Child Poverty in Korea: New approach to Measure Material Deprivation of Children

Kim, Eu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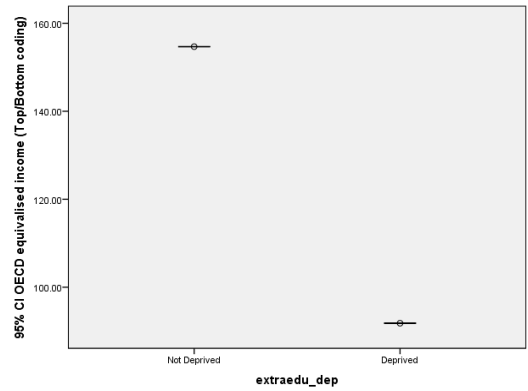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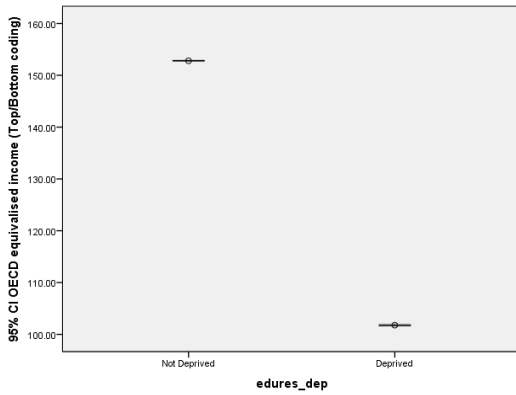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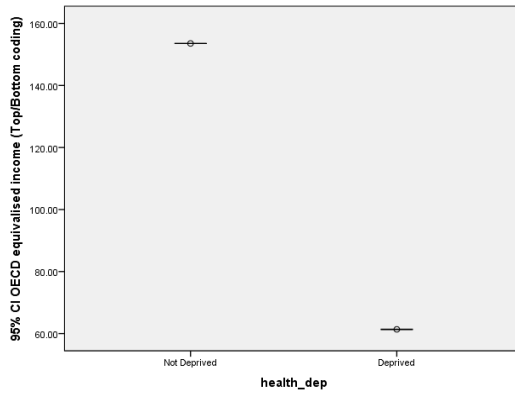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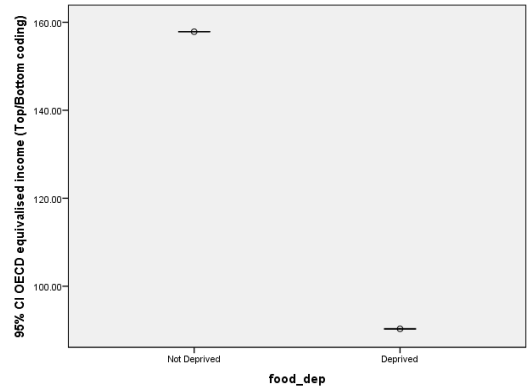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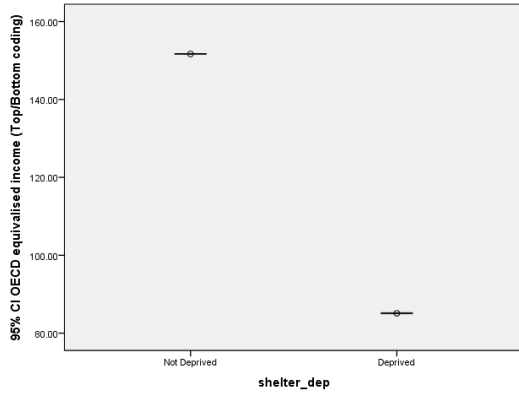
This study aims to measure child poverty in Korea with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Although poor children have been deprived in many aspects of living standards, poverty measurement based on household income comes short of identifying children's deprivation. In this sense,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child poverty drawing on the theoretical discourses of relative deprivation by Peter Townsend who defines poverty with standard of living, as well as income. It suggests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dex that comprises five component variables within four dimensions-Shelter, Food/nutrition, Health and Education. After reviewing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index, it estimates optimum poverty threshold considering standard of living and incom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2008 KOREA National Survey on Children and Youth Data, child poverty rate measured with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is higher than conventional income poverty rate. In addition, a range of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are analysed to come up with characteristics of poor households with children. Child poverty rate appears to be higher in the rural area, household headed by aged over 60s, lone-parent, single mother, and working poor househol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or child policy to introduce more inclusive poverty measurement and directly target specific needy group.

Key Words: material deprivation, multidimensional poverty, child poverty, child policy

◆ 2015.05.08. 접수 / 2015.08.30. 1차 수정 / 2015.09.14. 게재 확정

* Visiting fellow, Centre for the Study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Townsend Centre for International Poverty Research), University of Bristol, U.K.(joanne0427@hanmail.net).

[부록 1] 다차원 박탈지표의 타당성(Validity) 검증



* 주: 주거 박탈(shelter_dep), 식생활 박탈(food_dep), 의료서비스 박탈(health_dep), 교육자원 박탈(edures_dep), 방과 후 교육활동 박탈(extra edu_dep)